

울산항만공사 제7대 사장에 변재영 씨 임명

- 울산항을 에너지물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할 책임자로 평가받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25일(월)자로 울산항만공사 제7대 사장에 변재영 씨를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7년 11월 24일까지 3년이다.

변재영 신임 사장은 1996년 기술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국립해양조사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변 신임 사장은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울산항만공사의 위상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물류 선도, 선박연료 종합 공급 거점 도약, 신사업 모델 다각화 등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 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책임자	과 장	엄익환 (044-200-5750)
		담당자	서기관	유혜주 (044-200-5751)

참 고

변재영 신임 사장 약력

□ 변 재 영 (卞 在 榮)

○ 생년월일 : 1966년 11월 10일

○ 학 력 : 부산중앙고등학교

경찰대학 행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 학사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토목공학 석사



○ 주요경력

- 해양수산부 주미대한민국대사관 ('14. 8 ~ '17. 9)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9. 9 ~ '21. 2)
-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 ('21. 2 ~ '21. 6)
- 해양수산부 장관정책보좌관 ('21. 6 ~ '22. 2)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22. 2 ~ '23. 1)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23. 1 ~ '24. 10)